

광주역·송정역·상무지구 도시재생·혁신 거점 뜬다

도시재생 뉴딜·투자선도 지구·도심 융합 특구 사업 본격화

광주역·송정역·상무지구 일원이 침체와 정체에서 벗어나 도시재생과 혁신의 새로운 선도 거점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민선 7기 들어 그동안 낙후하고 침체됐던 이들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투자선도지구, 도심융합특구 선도도시 등으로 지정하고 개발 방식을 확정했으며,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일부는 착공에 들어가는 등 실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는 도시재생 뉴딜, 투자 선도지구, 도심 융합 특구 등 개발 방식이 확정돼 세부 계획이 수립 중이다. 광주역 일대는 2025년까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혁신지구, 민간복합 개발 사업을 통해 호남권 최대 창업 단지로 변신한다.

지난 1월에는 마중물이 될 '어울림 팩토리' 건립 공사가 시작됐다.

20억원을 투입해 광주역 인근 지상 4층, 연면적 542㎡ 규모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해 소상공인 등 입

주 공간으로 활용한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350억원이 투입되는 빛고을 창업 스테이션 건립 공사도 이달 말 착공한다.

광주역 뒤쪽 1만4000㎡에는 앞으로 5년간 1688억원을 투입해 그린, 디지털 등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조성된다.

광주역 철도시설 이전, 재배치를 통해 확보되는 공간에서는 코레일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송정역 일대는 투자 선도지구로 개발된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송정역 KTX 지역 경제거점형 투자선도 지구'는 산업, 업무, 주거 등 융복합 지구가 될 전망이다.

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1구역(3만1778㎡)은 교통, 환승 체계 등 기반 시설을 개선해 국토 서남권 광역교통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육성한다. 송정역 뒤쪽 2구역(52만8649㎡)에는 빛그린 산단과 연계한 자동차 산업 연구·지원시설, 주거·상업 단지가 생긴다.

광주시는 국토부의 투자선도 지구 사업 지정·고시에 따라 계획 수립, 승인 절차 등을 거쳐 2022년 토지 보상,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무지구는 삶, 일, 여가를 연계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도심 융합 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정됐다.

85만㎡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모델을 적용해 기업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복합혁신 공간을 제공한다. 2025년까지 창업·성장·벤처·소통·교류 공간과 혁신 기업·글로벌 공간을 조성한다. 광주시는 최근 도심 융합 특구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토지 보상에 들어가 2024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원 광주시 뉴딜사업팀장은 "한때 광주 중심지였던 광주역 등이 도심 팽창 등으로 침체와 정체를 겪으면서 인근 주민의 삶의 질마저 저하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민선 7기 들어 광주 도심의 고른 발전을 목표로 각종 개발사업과 재생사업 등을 병행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미디어 파사드 공연

지난 10일 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미디어 파사드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오는 8월28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에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지원으로 진시영 작가의 '빛의 나무'를 상영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해상풍력 기업유치 가속화

'전남 해상풍력 육성 포럼' 개최

전남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남도의 기업 홍보 활동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풍력산업협회와 '전남 해상풍력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제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SWEET 2021'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전남 해상풍력 확산과 홍보를 위해 진행됐다.

전남도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과 제도 개선 사항 등 해상풍력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사업 가속화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와 해상풍력 관련 기업의 해상풍력 발전 방안 발표와 토론에 이어, 주한 영국대사관의 영국 해상풍력 성공전략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전남도는 국내 철강·해상풍력 기업 15개사와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기자 노트

터질 게 터진, KBO 코로나 사태



김여울
체육부 차장

지난 시즌 KBO리그는 코로나 시대의 '희망'이었다.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그라운드를 열었고, 리그 축소 없이 144경기 전체 일정을 완수했다. 2군 선수단에서 확진자가 나왔지만 큰 영향 없이 KBO 리그는 기적 같은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최근 KBO리그는 수도권 발 코로나19 확산세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9일 NC 선수단에서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0일에는 두산 1군 선수단에서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NC에서는 재검 결과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그 여파로 8·9·10일 리그 일부 경기가 취소됐다. 앞서 6월 29일에도 KT 코치와 두산 전력 분석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두 경기가 취소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1군 선수단에서 이를 연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상대 선수단도 연달아 검사를 받았고, 두산·NC 선수단 전원도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리그 중단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11일 오전 KBO 실행위원회가 소집돼 경기 진행 여부를 놓고 회의를 했다. 일단 잠실 LG-두산, 고척 NC-키움 경기를 제외한 3경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두산 선수의 확진 때문에 전날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던 KIA 선수단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이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해 12일 KBO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리그 운영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

사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상조짐을 보이고 처음 KT와 두산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야구단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팬들과 달리 선수단

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지는 등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전 겪은 일이다. 경기가 끝난 후 수훈 선수 인터뷰를 위해 인터뷰실로 가는 과정에서 원정 선수단 관계자 두 명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게 됐다. 한 관계자의 말을 듣고 혀를 차지 않을 수 없었다.

"끝나고 뭐냐?"며 다른 관계자에게 말을 건 문제의 관계자는 "나는 술 한 잔하고 들어갈 생각이다"는 말을 남기고 원정팀 라커룸 방향으로 이동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경기가 중단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지 며칠 되지 않았던 만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정말 술을 마시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대한 선수단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장면이었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KBO는 코로나19 초비상 상황을 맞았다. '결국 터질 게 터진' 것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게 코로나19의 무서움이다. 조심 또 조심해도 모자랄 시기에, 며칠 전 아찔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내부의 인식은 달랐던 탓이 크다.

프로 야구계는 코로나19로 여러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 '치맥'도 포기하고 관람석을 지켰던 팬들이 안중에 있기는 할까. 결과적으로 팬들만 가슴 졸이며 그라운드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KBO리그의 선수단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무슨 일 없었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 wool@kwangju.co.kr

여수 화양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2024년까지

이달 말 기간 만료를 앞둔 여수 화양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4년까지 연장됐다.

그동안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역 정치권과 주민 의견을 모아 화양지구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강력 건의했다.

법무부는 대형숙박시설 착공 등 실질적 외국인 투자가 가시화되는 시점임을 감안, 투자이민 협의회를 거쳐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확정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외국인이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는 제도다. 5년 이상 유지 시 영주권을 부여한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한 인센티브다. 여수 화양지구를 포함해 전국 5개 시·

도에 8곳이 지정됐다.

화양지구에는 (주)HJ매그놀리아윙퍼디오션 호텔엔리조트가 골프장, 호텔, 콘도 등 휴양과 레저가 복합된 897만㎡의 복합관광단지 조성하고 있다.

2024년까지 1조2813억원을 들여 남해안 관광거점이자 동북아 해양관광의 허브로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18홀의 디오션골프장을 운영중이며, 10월 말 힐&테라스 콘도 274실도 착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이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로 이어져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힐&테라스 콘도 분양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 선별을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